



재해 없는 직장, 행복한 가정의 기본입니다.

- (주)삼우기계 -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도시, 여수는 가을이 물들어 가는 산과 들이 알록달록한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고 항구에는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이 그 단단하고 웅장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제철과 석유화학의 메카, 여수의 (주)삼우기계를 방문하였다.

PCP인증업체로서의 삼우

전남 광양시 광야읍에 위치한 (주)삼우기계는 1987년에 설립하여 20여 년간 포항제철의 파트너로서 최선에 제철소 설비를 위주로 한 산업기계제작 및 자동화설비를 제작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2003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 R&D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금용 에어 나이프 노즐, 오토크랩프, 확장용 롤러 테이블 등 11개의 실용실안과 특허를 획득하였다. 2005년 1월에는 포항제철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원자재 납품과 신



용도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PCP인증을 받음으로써 한 차원 높은 품질을 인정받게 되었다.

재해 없는 직장, 행복한 가정

삼우기계는 2005년 슬로건으로 “재해 없는 직장,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다”라고 정하였다. 재해는 한 순간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간다. 철저한 재해예방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 개인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한다. 근로자들이 평균 약 10만 시간(하루 8시간×연간 300일×40년+4000(잔업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면서 한 건의 사고나 재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지켜지는 타율적인 안전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자율적인 안전이야말로 작게는 개인의 행복을, 나아가서는 기업 전체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하여 삼우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3~4명으로 조를 이루고, 다시 2~3개의 조가 합쳐져 하나의 반이 되어 조직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월례행사를 통한 조별 근로자간의 부담 없는 대화와 토론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단단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분임조 활동이 이루어지며, 분임조 활동으로 작업 방법의 개선 및 아차사고 등의 토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품질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소기업에서 품질보다 안전을 중시하고 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본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재해로부터 작업자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포항제철의 벤더로서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삼우는 품질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불안정한 설비개선과 안전보호구의 지급방법개선 등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매년 안전활동계획서 및 안전관리 조직표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전 작업자의 동참 아래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조가 끝난 후 안전구호를 제창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다.

또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사외교육에 참여케 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년 2회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사 규모의 증대와 인력증원에 대비하여 사외강사를 초빙, 건전한 직장풍토조성과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불안정한 시설물과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무재해 개시를 통한 안전의 새로운 도약

삼우는 10월 1일부로 무재해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모든 삼우가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이며 확고한 신념의 발로이다.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활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선함과 동시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철저한 실천을 통하여 재해 없는 삼우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무재해 운동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만으로 안전관리자의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칠고 험한 항해이다. 이제 막 그 항해를 시작한 삼우에게 항상 변치 않는 초심으로 순항의 나팔을 불어 다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